發明散策

◎ 第2回 ◎

미리가본 西紀2000年

編 輯 室

로보트 심부름꾼 시대 열려

어느 가정을 방문해도 모든 설비가 電子化되어 있다.

맞벌이 부부가 퇴근하여 저녁식사를 마련하느라 예전처럼 30分이나 1時間 가량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집에 있는 「하우스 로보트」에게 電話로 지시만 하면 모든 일을 지시한대로 준비해 주기 때문이다.

「하우스 로보트」란 개인 컴퓨터를 말한다.

집에 電話를 걸면 맞벌이 부부인지라 집이 비어 있으므로 不在中電話應答裝置가 대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씨 댁입니다. 지금 가족 모두가 外出中입니다. 전달할 말씀이 있으면 錄音해 두겠읍니다.」

괴꼬리같은 목소리에 상대가 不在中인데도 전혀 불쾌하지가 않다.

이때 定해진 번호를 누르면 하우스 로보트가 電話를 받는다. 다시 定해진 번호를 눌러 도착시간을 알리고 저녁식사 준비를 지시하면 하우스 로보트는 지시된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인다.

도착시간 5分전까지 전기밥솥에는 따끈따끈한 밥을, 전자레인지에는 펄펄 끓는 국을, 식탁위에는 각종 반찬을 준비해놓고 주인을 기다린다.

물론 목욕탕에는 알맞는 온도의 목욕물을 준비하고 실내온도의 조절도 끝내 놓았다.

1時間만에 1백年된 포도주 즐겨

고도문명의 기술에 의해 포도주도 그 맛이 최고에 이르고 있다.

포도주가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맛이 좋아진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것은 포도주의 熟成기간이 길면 길수록 알콜과 물의 分子가 서로 골고루 섞이는 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루종일 업무에 시달린 남편이 1985年 크리스마스 이브에 마시던 포도주 생각이 난다며 아내에게 저녁 식사후 포도주 한잔씩 하는게 어떻겠냐고 의견을 묻는다. 아내도 쾌히 승락한다.

남편은 하우스 로보트를 쉬게하고 超音波攪亂機에 이제 갓 발효된 포도주를 넣고 기계를 작동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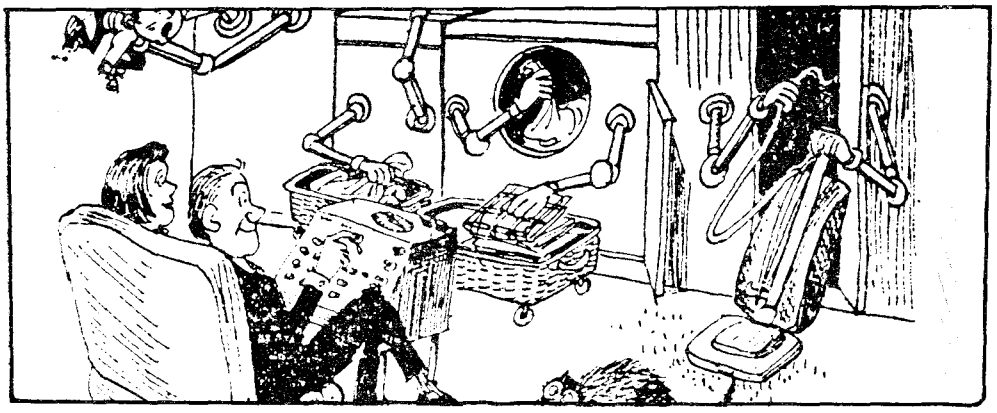
1시간뒤 超音波攪亂機 속에서는 1백年 정도 묵힌 포도주와 같은 맛으로 숙성된 포도주가 나왔다.

그런데 이 기계는 1985年의 믹서처럼 많은 가정이 보유하고 있다.

식사를 마치고 부부가 포도주를 마시는 사이에 하우스 로보트는 설것이를 마치고 침실을 정리한 다음 주인을 침실로 안내한다.

音聲으로 열고 닫는 門

2000年에는 자물쇠는 있어도 열쇠가 없다.



아니 없는게 아니라 필요가 없다.

집에 도착하여 대문 앞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열려 !」하고 지시하면 대문이 저절로 열린다. 물론 대문이 열림과 동시에 집안의 필요한 전등이 켜진다.

대문이 열리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19세기에 듣던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 생각난다.

이 때문인지 어떤 사람은 아예 「열려라 참깨 !」「닫혀라 참깨 !」로 모든 문을 열고 닫으며 1985年代의 향수를 달래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나 「열려 !」하고 지시를 한다고 해서 항상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도둑이 와서 소리를 질렀을때 문이 열리면 큰일이다. 다행히도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다.

사람은 저마다 각기 다른 聲紋이 있기 때문이다. 성문이란 음성을 나타내는 복잡한 파동을 말한다. 사람마다 指紋이 서로 다르듯이 성문도 제각기 다르다. 그래서 가족의 목소리를 컴퓨터에 미리 기억시켜 두면 이들 장치에 의해 지시를 한 사람의 목소리가 파악되어 가족들의 지시에 의해서만 문이 열리고 닫힌다.

행동대신 지시가 가능한 것은 문을 열고 닫는 것 외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불을 켜고 끄는 것, 조명조절, TV채널변경, 선풍기 풍속·풍향조절등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이 지시만 하면 원하는대로 움직여 준다.

防犯·防火도 로보트가

집안 일을 도와주는 하우스 로보트는 防犯·防火에도 크게 활약한다.

도둑이 침입하면 경적이 울리는 동시에 TV화면이 켜진다. 곧이어 도둑의 모습이 비춰진다. 도둑이 아무리 교묘히 몸을 숨겨도 전자장치가 추적하여 곧바로 찾아낸다.

화면에 도둑이 비춰지면 하우스 로보트는 즉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를 하고, 동시에 「홈 시큐리티 서비스」 회사에도 연락한다. 3~4分 후면 경찰과 회사 직원이 달려온다.

홈 시큐리티 서비스 회사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계약을 맺고 일정액을 지불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불이 나기가 무섭게 소방서와 용역회사에 연락이 되고 가족이 집에 없으면 근무지까지 연락이 취해진다.

또 방마다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 클러가 자동으로 작동돼 웬만한 불은 소방대원이나 용역회사 직원이 오기전에 진화를 하거나 아니면 불이 크게 번지지 않게끔 한다.

그런데 이 또한 전 세계에 보급되어 사람들은 마음놓고 잠을 자고 외출도 하고 있다.

〈계 속〉